



왜 일해야 하는 걸까요?

1. 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K 씨는 투자회사에 다닌다. 커미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고 날마다 성과가 공개되어 부담감이 크다. 점심도 제때 못 먹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가고, 다시 새벽같이 출근한다. 그래도 주일만큼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데 얼마 전 목사님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교사 훈련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Tip. 모든 질문은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주세요.
Biblical Point 나눔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 K 씨처럼 '세상 알'이 바빠서 '하나님의 알'을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

- K 씨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우리는 일을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일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고 한다. 우리는 성과 속을 가르면서 주일 하루와 평일 저녁 하루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주중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거나 세속적인 시간, 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으로 분리하여 자유롭게 생활한다. 일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관여할 겨를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일은 일 이니까 그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주중의 시간 동안 어떠한 핵심 가치에 의해 내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다.'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483년 ~ 1546년

베루프(Beruf, 직업)는 소명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 삶의 대부분이 '세상 일'에 속한다면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이들은 바이어를 만나거나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직장에서 틈나면 성경을 읽는 것, 점심시간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는 것, 때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등이 일터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 일부 열정파는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을 아예 직장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로 생각한다. 그럼 직장은 선교나 전도를 위한 수단 또는 위장근무용(?)인가? 사실 방금 열거한 모든 것이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훌륭한 일들이다. 결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 일? 하나님의 일?

종종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 일을 줄이고 좀 더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 어떤 분들은 아예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것 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봉사활동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제자 양육 사역에 적극 참여하거나, 선교 활동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인 일'이란 말씀공부, 새벽 기도, 선교 아웃리치 등 교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상 일'이란 무엇인가? 돈 버는 일, 직장 생활 하는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생활을 사는 것을 주로 일컫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주일 성수'를 고수하며 일요일은 주님께 바치는 날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주님께 안 바치는 날'인가? 주님과 크게 관계없는 날들인가? 그 날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분법의 고리를 끊어라!

중세에는 인간의 노동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을 얻는 일시적 수단으로 생각했고 그것의 영원한 가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오직 수도사와 신부, 또는 수녀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부름을 받은 '신령한 직분'이라 여겼다.ⁱⁱ 그 외의 노동은 천박하거나 불가피한 일로 보았다.ⁱⁱⁱ

이런 이분법의 고리를 끊은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다. 그는 당시 성직자에게만 쓰였던 단어인 '베루프(Beruf, 소명)'를 일반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에 사용했다. 루터는 직업이 단순 노동(Arbeit)이 아니라 베루프(소명)임을 천명한 것이다. 루터는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부르심'이란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 베루프(Berufen)로 번역하여^{iv} 직업이란 '소명(부르심)'과 마찬가지로이며,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루터가 근대적 의미의 직업 개념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 물론 의사나 교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덧입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제조업, 은행업, 자영업, 엔지니어, 공무원, 사무직, 생산직 등의 직군에 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소명(부르심)'이라는 생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일을 통해 드러난 요셉의 영성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 겪는 이야기를 담은 창세기 39장에는 놀랍게도 여호와와 이름인 '야웨'가 8번이나 나온다.^v 야웨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결과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과 함께 야웨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주목할 만하다.

왜 여호와께서 보잘것없는 일개 노예와 함께 하셨겠는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음에도 요셉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의미한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의 ‘일’ 속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가정 총무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모든 소유를 위탁한다. 재무관리까지 다 맡겼다는 이야기다. 요셉은 이 일에 탁월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로 반영이 된다.

주인의 재산증식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덕분이다. 요셉과 하나님이 공동으로 보디발의 사업을 융성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좋은 모범이 된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일터는 더욱 다방면으로 융성하게 되어야 한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된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성을 지킨 대가가 감옥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도 아웨는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셉의 우선순위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옥에서도 ‘일’로 나타난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과 감옥 제반 모든 사무에 대한 전권을 요셉에게 맡긴다. 덕분에 감옥 일도 잘 돌아가게 된다.

한 리포트에 따르면 수감되었던 미국의 폭력 갱단 두목이 마약, 마리화나, 휴대전화, 담배 등을 몰래 들여온 뒤 판매해 한 달에 2천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여성 교도관들과 사귀어 4명의 교도관들을 임신시킨 사건이 드러나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2015년 2월 워싱턴 월드 리포트). 만약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다면 비리를 막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감옥의 질서를 잘 유지 했을 것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비록 비참하게 주어진 상황의 ‘일’이지만 그 안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해냈다. 요셉의 영성은 이처럼 ‘일’로 드러났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은 최악의 여건에서 경영 수업(?)을 잘 마쳤기에 마지막 커리어인 애굽의 총리도 신뢰성 있게 잘 해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기근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베루프를 노예, 죄수, 총리 등의 직분에 관계 없이 매번 잘 감당했으며 그 일을 통해 마침내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부르심’이란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 베루프(Beruf)로 번역하여 직업이란 ‘소명’과 마찬가지로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임을 강조했다.

구약에서는 '직업 또는 일'의 뜻을 가진 단어가 회막을 짓는 성스러운 일(출 35:21), 노예가 하는 일(창 39:11), 농경의 일(대상 27:26), 어업과 상업의 일(시 107:23) 등 한 단어가 곳곳에 성(聖)과 속(俗)의 구분이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구약에서는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의 이분법적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일의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말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우리의 영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그것이 꼭 문제없는 삶(problem-free)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베루프 속에 소명을 주신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합작하여 할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이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위의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월~토요일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FWIA Voice

요약정리



모든 일과 노동에 성과 속의 구별은 없습니다.



모든 노동과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단순히 밥벌이가 아닌 소명이란 시각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직” 뿐 아니라 모든 “노동”은 동일하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부르짖었습니다. 즉 일의 신학의 기본은 모든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Faith 와 Work'을 통합하려는 여러분의 긴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i 팀켈러. 「일과 영성」(두란노, 2013), 244.

ii Ibid., 84.

iii Ibid., 244.

iv Ibid.

v 창 39 : 2, 3[2번], 5[2번], 21, 23[2번]

FWIA BUCKET

